

2014년 시민역사강좌 <제 12기 가야학아카데미>

김해사람들의 삶과 문화 ①

2014년 9월 24일(수), 오후 2~4시

김해의 한글학자 눈뫼 허 응

하 치 근

한글학회 이사, 동아대 명예교수

이 수업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수업은 정시에 시작되오니 수업 5분 전까지 강의실(강당) 입실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수업 시작 이후부터는 강의실 출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 3) 강의 교재는 1인 1부만 배부합니다. 교재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 교육/행사마당 → 교육자료실**에서 교재 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4) 수업 중에는 휴대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시민역사강좌 <제 12기 가야학아카데미>
김해사람들의 삶과 문화 ①

김해의 한글학자 눈뫼 허 응

발 행 국립김해박물관
(621-900) 경남 김해시 가야의 길 190(구산동 232)
국립김해박물관
TEL/ 055)320-6881~2
<http://gimhae.museum.go.kr>

인 쇄 핸드디자인 / 070-7380-0641

눈뫼 허 응 선생 해적이

- 1918년 7월 26일(음력 6월 19일): 경남 김해시 동상동 965번지에서 태어남.
- 1926년(9살) 4월 ~ 1932년(15살) 3월: 김해 보통학교 입학, 졸업.
- 1932년 4월 ~ 1938년 3월: 동래 고등보통학교 입학, 졸업. 병으로 휴학한
(1934년 4월 ~ 1935년 3월) 뒤 3학년에 복학하자
국어 공부를 하기로 결심.
- 1938년(21살) 4월 ~ 1939년 3월: 연희전문학교 문과 입학, 중퇴.
- 1939년(22살) 6월: 혼자 공부하기로 결정하고 고향으로 내려감.
- 1945년(28살): 광복을 맞아 고향인 김해에서 한글 강습을 열어 강사 생활을 함.
- 1945년 9월 ~ 1947년 3월: 광신 상업고등학교 교사.
- 1947년(30살) 4월 ~ 1947년 8월: 한성고등학교 교사.
- 1947년 9월 ~ 1954년 4월: 부산대학교 교수.
- 1953년(36살) 4월 ~ 1955년 3월: 성균관대학교 교수.
- 1954년(37살) 4월 ~ 1958년 2월: 연세대학교 교수.
- 1957년(40살) 5월 ~ 1982년 2월: 서울대학교 교수.
- 1960년(43살) 4월 ~ 2004년 1월: 한글학회 이사.
- 1968년(51살) 3월 ~ 1975년 10월: 동아대학교 초빙교수.
- 1968년 8월: 서울대학교에서 문학박사 학위 받음.
- 1970년(53살) 5월 ~ 2004년 1월: 재단법인 한글학회 이사장.
- 1970년 5월 ~ 1977년 9월: 문교부 국어 조사 연구 위원회 위원장.
- 1970년 5월 ~ 2004년 1월: 세종대왕 기념 사업회, 외솔회 이사.
- 1971년(54살) 4월 ~ 2004년 1월: 한글학회 회장.
- 1973년(56살) 3월: 제2회 외솔상(학술 부문) 받음.
- 1984년(67살) 2월: 국민 훈장 모란장 받음.
- 1984년 2월: 세종대학교에서 명예 교육학 박사 학위 받음.

〈제 12기 가야학아카데미〉 김해사람들의 삶과 문화①

- 1984년 3월 ~ 1989년 2월 : 동아대학교 대학원 교수.
- 1984년 3월 ~ 2004년 1월 : 사단법인 애산학회 이사장.
- 1984년 7월 ~ 2004년 1월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1984년 9월 ~ 1986년 8월 : 세종대학교 초빙교수.
- 1986년(69살) 9월 : 제1회 ‘성곡 학술문화상’ 받음.
- 1986년 12월 ~ 2004년 1월 : 한힌샘 주시경 연구 모임 대표.
- 1987년(70살) 4월 ~ 2004년 1월 : 한글 문화 단체 모두모임 상임고문.
- 1990년(73살) 10월 : 제9회 ‘세종 문화상(학술 부문)’ 받음.
- 1993년(76살) 10월 : ‘주시경 학술상’ 받음.
- 1994년(77살) 12월 ~ 2004년 1월 : 중국 상하이외국어대학 명예교수.
- 1998년(81살) 5월 13일 : 세종대왕 기념 사업회와 한일은행이 공동으로
제정한 제1회 ‘세종성왕 대상’ 받음.
- 2000년(83살) 10월 16일 : 제10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상’ 받음.
- 2002년(85살) 11월 29일 : 제2회 ‘연세 문인상’ 받음.
- 2004년(87살) 1월 26일 10시 13분 : 세상을 떠남.
- 2004년 1월 27일 :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받음.
- 2004년 1월 30일 12시 : 한글학회장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 공원에 모셔짐.
- 2005년 1월 26일 12시 : 한글 학회 주최로 모란공원 무덤터에서 눈뫼 허 응
선생 1주기 추모식과 묘비 제막식을 가짐.
- 2014년 1월 23일 오후 5시 : 눈뫼 연구회 주최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눈뫼 허 응
선생 10주기 추모 모임”을 가짐. 이 자리에서 추모 학술 논문집
『허 응 선생 학문 새롭게 읽기』봉정식을 가짐.

<저서> :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2000년, 샘문화사) 외 28책

<논문> : “우리 말글을 보아 온/보는 두 가지 눈”, 한힌샘 주시경 연구 제12호
(1999년, 한글학회) 외 67편

김해는 가락국의 전통이 살아 숨쉬는 역사의 고장이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는 우리말과 글을 중심으로 하여 민족혼을 일깨우고 조국의 자주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환산 이운재 선생과, 국어학자로서 우리 국어학의 발전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눈뫼 허 응 선생이 태어난 고장이다.

오늘 이 강의에서는 김해가 낳은 한글학자 눈뫼 허 응 선생의 학문과 삶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현재 김해시와 김해 교육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눈뫼 허 응 선생 기념 사업의 추진 상황을 소개하려고 한다.

I. 눈뫼 허 응 선생의 발자취

눈뫼 허 응 선생은 1918년 7월 26일 경남 김해시 동상동 965번지에서 아버지 허 수님과 어머니 윤 영순 여사의 5남 2녀 중 3남으로 태어났다. 선생은 김해 보통학교(현, 동광초등학교)에서 수학하고 1932년에 동래 고등보통학교(현, 동래고등학교)에 입학하여 국어를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눈뫼는 동래 고등보통학교 3학년 때 외솔 최현배 선생의『중등 조선 말본』을 읽고 감명을 받아, 그 뒤에 나온『우리 말본』을 졸업 전에 다 읽었다.

그 영향으로 외솔 선생이 재직하고 있던 연희 전문학교(현, 연세대학교)에 입학한다. 이 때가 1938년 4월이다. 입학한 1년 뒤에 외솔은 흥업구락부 사건으로 강제 사직을 당한다. 눈뫼는 외솔이 없는 학교를 더 이상 다닐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학교를 중퇴한다. 그러고는 혼자 공부하기 위하여 고향 김해로 내려간다.

허 응 선생이 동래 고등보통학교에 재학하던 때의 일화이다. 당시 영어를 가르쳤던 선생은 뒤에 서울대학교 총장을 지낸 권 중희 선생이었다. 그때 반장이자 럭비 선수였던 허 응 선생은, 영어 시간에 옆에 앉은 학생과 장난을 치다

가 권 선생의 지적을 받았다. “허 응, 지금 내가 무엇을 설명했지?” 라고 묻자, 허 응 선생은 정확한 대답을 했고 또 추가된 권 선생의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을 했다. 권 중희 선생은 너무도 우수한 제자인 허 응 선생을, 자기 모교인 동경제국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한 수순으로 동경제일고등학교에 입학하도록 권유를 했다. 그러나 이를 마다하고 외솔 선생이 재직하고 있던 연희전문학교를 선택했던 것은, 허 응 선생의 우리말 사랑이 지극하였음을 보여준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다. 선생은 1945년에 광복을 맞아 고향 김해에서 한글 강습을 열어 우리말·글을 가르쳤고, 그 뒤에는 광신상업고등학교, 한성고등학교 등에서 국어를 가르쳤다. 1947년부터 부산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등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국어학을 연구하고 제자 교육에 전념하였다.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할 때인 1968년 3월부터 1975년까지 7년 동안은 동아대학교 초빙교수로 출강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정년퇴임 후인 1984년부터 5년 간은 동아대학교 대학원 교수로 출강했다. 학회의 활동 상황으로는, 국어심의회 한글 분과 위원회 위원,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어심의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1960년 4월에 한글학회 이사로, 1970년에는 한글학회 재단 이사장으로, 1971년부터 2004년까지 약 34년 동안은 한글학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그 공로로 1973년 3월에 제2회 외솔상(학술 부문)을 수상했고 1984년에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다. 1990년에 제9회 세종문화상을, 1993년에는 주시경 학술상을 수상했고, 1995년에는 연세대학 석좌교수로 임용되었다. 2000년 10월 16일에는 제10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상을 당시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와 함께 수상했다.

II. 눈뫼 허 응 선생의 삶과 학문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이후, 한헌샘 주 시경 선생이 한글맞춤법과 현대 국어학의 기틀을 잡았고, 외솔 최 현배 선생이 현대 국어의 말본 체계를 잡았으며, 이를 계승하여 15세기 국어와 현대 국어의 학문적 마무리를 지은 분이 눈뫼 허 응 선생이다. 현재 선생의 가르침을 받은 수많은 국어학자들이 우리나라 국어학계를 이끌어 가고 있다. “주 시경 선생이 국어학의 주춧돌을 놓았고 최 현배 선생이 집을 지었다면 나는 그 집을 보수했다.”라고 눈뫼 선생이 말한 바 있다. 눈뫼 선생은 한글이 우리 민족 정신의 바탕이라는 점을 늘 강조했고 한결같이 한글 사랑과 나라 사랑에 온 몸을 바친, 나라의 정말 보기 드문 큰 별이고 국어학계의 거목이다.

- 1) “눈뫼 선생의 학문은 주 시경 선생이나 최 현배 선생의 학통을 계승하였지만 전혀 다른 현대 언어학적 방법론의 토대 위에서 있는데, 그것은 오로지 선생님의 독창적인 학문적 깨달음의 바탕 위에서 재정립된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선생님의 학문은 누구에게서 직접 배우거나 어느 책에서 직접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현대적인 이론의 바탕 위에서 끊임없이 연구하여 독창적으로 체계화한 것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김 종택(2005), 『눈뫼 허 응 선생의 삶』, 264~5쪽, 한글학회-

- 2) “눈뫼 선생님은 학문의 큰 분야로 볼 때는 언어학자였고, 주된 연구 대상 언어로 볼 때는 국어학자였다. 선생님은 음운론, 형태론, 통어론, 의미론의 4대 기본 분야와 방언학 분야를 고루 갖추셨고, 또 4대 분야에 대해서는 공시와 통시적이 관점에서 거의 모든 것을 두루 통달하셨다. 한글 운동

가를 겸하기도 했다. 한글 운동가가 된 것은 우리말, 우리글, 우리 겨레에 대한 깊은 사랑을 실천한 것이며, 한힌샘 선생과 외솔 선생의 사상을 이어받은 것이기도 하다.”

-김 차균(2005), 『눈뫼 허 응 선생의 삶』, 150쪽, 한글학회-

- 3) “허 응 선생 학문의 성격을 한 마디로 말하자면 ‘연구’와 ‘실천’, 둘의 조화라고 하겠다. 선생의 학문은 국어 연구를 언어과학으로 승화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어를 지키고 가꾸는 실천 운동을 전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국어를 객관화시켜 과학적으로 연구만 하고 국어 문화의 가치를 무시하는 학문 태도, 학문적 바탕 없이 맹목적으로 국어 사랑을 외치는 국어 운동의 태도, 허 응 선생은 이 둘을 평소 가장 경계하였다. 그러한 면에서 허 응 선생은 탁월한 학문 업적을 남긴 국어학자이자, 우리 민족 문화와 정신을 깨끗하게 지킨 국어 운동의 실천가였다.”

-권 재일(2014), 『허 응 선생 학문 새롭게 읽기』, 12쪽, 박이정-

- 4) “1970년대는 한글 문제에 가장 말이 많았던 시대였다. 1980년대는 영어 바람이 일기 시작했고, 1990년대에는 ‘영어 공용’이란 말이 나타나 ‘혀수술’, ‘이민 바람’까지 불었으나 이런 들뜬 사조가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2000년대에 와서는 한자 주장자들이 국가의 형행법인 ‘한글 전용법’을 걸어 소송을 내기까지 하였으나 다행히도 각하되고 말았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한 술 더 떠 한자를 국자화하자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한글을 위해 온 생애를 거는 사람들은 끊이지 않고 지켜내고야 마는 것은 무엇일까? 배달 겨레가 더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닐까?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끼치신 유산은 실로 큰

것이다. 국어학을 높은 봉우리에 올리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쉬운 한글에 담아 안겨 주셨음이 또한 못지않은 선물임을 생각하는 것이다. 스무권이 넘는 저서에 넘치는 국어학과 꽃다운 한글 쓰기와 샘솟는 겨레 사랑, 사람 사랑을 끼쳐 주셨다.”

-정 의순(2005), 『눈뫼 허 응 선생의 삶』, 335~6쪽, 한글학회-

- 5) “초등학교 한자 교육 반대, 한글날 국경일 제정, 영어 공용화 반대 등 회장님은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셨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회장님은 무조건적인 배척이 아닌, 한자나 영어 등 외국어의 중요성을 인정하시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라의 말과 글을 바로 세워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올바른 정체성을 심어준 다음에 세계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윤 여경(2005), 『눈뫼 허 응 선생의 삶』, 186~7쪽, 한글학회-

Ⅲ. 눈뫼 허 응 선생의 기념 사업

현재 허 응 선생의 고향인 김해를 중심으로 한 경상남도에서 허 응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추모하는 한글학당을 세우려는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말·글 연구와 사랑에 일생을 바친 분들이 태어난 지역의 한글학회 본회나 지회에서 관할 시·도의 지원 아래 그 분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추모 기념 사업을 해오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 1) 서울시에서는 2013년 12월 27일에 교육 공간이지 기억과 기념의 공간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종로구에 한글 역사 인물인 주시경, 헐버트의 상징 조형물 제막식을 가졌다.
- 2) 외솔 최 현배 선생의 고향인 울산에서는 현재 외솔 선생 추모 기념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2003년부터 울산시(중구)에서 47억 원을 들여 생가를 복원했고, 2009년에는 외솔 기념관을 개관했다. 그리고 2019년까지 246억 원을 들여 한글 마을 조성을 위한 기본 용역 계획을 세워놓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한글 교육을 위한 ‘한글 어학당’을 세우고 2013년 567돌 한글날에는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 대회’를 울산에서 가진 바 있다. 앞으로 외솔 선생의 일대기를 작품화한 공연 계획도 세워 놓고 시행할 것이라고 한다. 울산시에서 외솔 선생 기념 사업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293억 원에 이르고 있다.
- 3) 전북지회 관할인, 건재 정 인승 선생의 고향 전라북도 장수군에서는 2003년에 당시 군수가 중심이 되어 25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기념관을 짓고, 사당을 짓고 선생의 동상을 세우고 매년 추모 기념 행사를 해 오고 있다. 정 인승 선생은 국어학자로, 일제 강점기에는 독립 운동을 하다 투옥되기도 했고 건국대학교 교수, 전북대학교 총장을 지낸 분이다.
- 4) 애산 이 인 선생의 고향인 대구지회에서는 대구시와 협의 아래 ‘애산 선생 기념 사업회’를 결성하여 동상과 기념관을 세웠다. 애산 선생은 일제 강점기에 검찰총장, 초대 법무부장관, 제헌국회의원을 지낸 항일 민족 변호사였다. 무수한 항일 변론을 통해 총독정치에 항거했으며, 민족

운동 지도자로 조선어학회의 우리말·글 운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다가 옥살이도 했다. 1976년 한글회관 건립 기금으로 3천만 원을 희사했고 1979년에 영면하시면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자택을 한글학회에 기증하도록 유언을 남기신 분이다. 1984년부터 2004년까지 눈피 허 응 선생은 애산 선생의 뜻을 기려 사단법인 애산학회 이사장을 맡았다.

- 5) 김해에서도, 현재 허 응 선생의 추모 한글학당을 선생이 태어난 김해시 동상동에 세우기 위한 계획이 추진 중에 있다. 현재 허 응 선생의 기념 사업을 추진하는 중심에는 김 국권 전 경상남도 도의회 의원의 역할이 크다. 김 국권 의원은 경상남도 도의회 의원으로 있을 당시 허 응 선생의 추모 기념 사업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데 수고를 한 분이다. 김 의원은 ‘허 응 선생 생가 복원 사업’으로 2011년에 도비 1억 5천만 원, 2012년에 2억 원을 확보했다. 그리고 김해시에서는 8억 7천여만 원을 들여 올해부터 허 응 선생의 출생지인 동상동 일대에 지상 2층, 전체 면적 200m² 규모의 한글학당을 짓는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지금까지 허 응 선생의 추모 기념 사업을 위하여 확보된 기금은 12억 원 정도이다. 현재 김해 지역의 중소기업체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의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한글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허 응 선생 추모 한글 학당을 건립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한글 교육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추모 기념 사업을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다섯 지역 가운데 허 응 선생 고향인 김해에만 현재 지회가 없다.

그런데 김해에도 40년 전인 1974년에 경상남도에서 최초로 한글학회 김해

지회가 설립되어 30여 년간 활동을 해 오다 2006년도에 활동이 중단되었다. 처음 지회 설립의 강한 의지를 갖고 김해 지회를 설립하여 지회장을 맡았던 분이 갈매 김 계원 선생이었다. 김 계원 선생은 외솔 선생보다는 연세가 아래이고 눈뵈 선생보다는 위인 존경받는 한글학자요 교육자였으며 한글학회 감사를 지낸 분이다. 이 분은 한글학회 부산지회가 창립되었을 당시에도 초대, 2대 지회장을 지내셨을 만큼 한글 운동에 열정적인 분이였다. 당시 김 계원 선생은, “김해는 허 응 선생의 고향이므로 허 응 선생의 한글 사랑 정신을 김해에 이어가기 위해서 김해 지회 설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1974년에 김해지회가 설립되고 2년 뒤인 1976년 10월에 부산지회, 대구지회, 김해지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영남 지역 합동 발표회가 김해에서 있었는데, 그 때 허 응 선생께서 참석하여 인사 말씀을 해주셨다.

김해 지역 신문인 ‘김해뉴스’ 2013.10.8.자 기사에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률)이 9일 한글날을 맞아 김해 출신 한글학자 눈뵈 허 응 선생을 널리 알리는 활동에 나섰다. 여기에 다양한 한글 관련 교육 사업까지 실시하고 있다. 김해시가 허 응 선생 추모 한글학당을 짓기로 한 데 이어 교육 기관이 김해를 ‘한글 도시’로 부각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한글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이 실렸다.

우리말과 글의 연구에 바친 허 응 선생의 삶을 조명해 볼 때, 선생의 추모 기념 사업이 김해시와 김해 교육청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은 펍 뜻 깊은 일이다. 이렇게 되면 세종대왕, 주 시경, 최 현배, 허 응 선생의 추모 기념 사업이 위계 질서를 고려하여 일관되게 이루어지는 바람직한 여건이 조성되어 우리말·글 발전사의 근간을 이룰 수 있다.

2014년 1월 23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눈뵈 허 응 선생의 10주기

추모 기념 행사가 열렸다. 허 응 선생 제자들의 모임인 ‘눈뫼연구회’는 추모식과 함께 기념학술논문집 『허 응 선생 학문 새롭게 읽기』의 출판 기념식도 함께 가졌다. 이와 같은 활동은 앞으로 김해에서 추진하고 있는 눈뫼 허 응 선생 추모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활력소가 되리라 생각한다.

IV. 마무리

한글의 우수성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우리나라는 손전화의 기술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이며 손전화의 자판을 활용하여 빠른 속도로 개인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중국 한자와 일본 가나를 정보 기술 매체로 사용할 경우에는 알파벳으로 발음을 입력한 뒤에 해당 문자로 다시 변환시켜야 한다. 여기에 비해서 자판에 표시된 문자가 입력하는 즉시 기록되는 한글의 업무 능력은 한자나 가나에 비해서 7배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휴대폰의 문자 입력 방식은 연관성 있는 글자를 하나의 자판에 모으고 모음과 자음을 구분하는 한글 창제의 기본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철자 하나를 입력하는 데 필요한 타수에서 영어보다도 35% 정도 빠르다고 한다. 분초를 다투는 초고속 정보화 시대에 속도에서 앞서간다는 것은 한글의 우수성이 현실적으로 증명되는 객관적인 사례이다.

이 고장 김해는 한힌샘 주 시경 선생과 외솔 최 현배 선생의 학문과 정신 및 언어관을 이어 받아서 이를 더욱 발전시켰고 우리 말글 연구 역사의 정통성을 발전적으로 이루어 놓은 눈뫼 허 응 선생의 고향이라는 사실에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그 정신을 더욱 살려 나가기를 바란다.

「제12기 가야학아카데미 - 김해사람들의 삶과 문화」 교육과정

- 일시 : 2014.9.24.~11.26. 매주 수, 오후 2시~4시(2시간)
- 장소 : 국립김해박물관 강당

강의 일정 및 주제

회차	일자	주제	강사	소속	비고
1	9.24.	김해의 한글학자 눈피 허용	하치근	동아대학교 명예교수	
2	10.1.	김해의 불교	조원영	합천박물관 학예연구사	
3	10.8.	청동기시대의 김해	배진성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4	10.15.	낙동강과 김해의 역사지리	김덕현	경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5	10.22.	<답사> 김해문화유산답사	송원영	대성동박물관 학예연구사	
6	10.29.	김해의 유교문화	김훈식	인제대학교 역사고고학과 교수	
7	11.5.	김해왜성과 그 의미	나동욱	부산근대역사관장	
8	11.12.	이학규의 시문을 통해 본 김해의 옛 모습	김성진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9	11.19.	김해 제염업의 역사	유승훈	부산박물관 학예연구사	
10	11.26.	김해의 지명에 대하여	민궁기	창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강의 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